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6, No. 3, 2004. 8, pp. 207-225.

#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정 진 경
(명지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기존 척도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전문가조사와 실증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절차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는 11개 문항 5점 척도이며, 독립과 자립, 일 자체, 근면과 성공이라는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에 대해 3개의 하위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누적 설명력은 54.9%였으며 내적 신뢰도는 α=.79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 의해 측정된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는 55점 만점에 43.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이론적 검토 및 실증적 검증 절차를 거쳐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또한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과학적 측정도구의 적용으로 향후 학문적 연구주제가 다양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개선과 보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 공공부조수급자, 근로윤리, 일에 대한 태도 척도

## 1. 서 론

1982년 생활보호사업에 '자활사업'의 도입 이후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르기까지 공공부조수급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일을 통한 자립적 생활' 유도는 중요한 정책의 목표가 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 많은 나라에서 지향되고 있는 정책목표로, 미국은 근로가능 수급자에 대해 강력한 근로유인과 취업 촉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호주는 근로 미약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등

최소한의 상호의무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수급자에게서 '일에 대한 태도' 내지 '일'이 중요한 의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첫째, 생계비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이 점차 낮아져 일보다는 복지급여를 선호하게 될 우려에 의해서이다(Murray, 1984; Tanner et al., 1997). 둘째, 보다 직접적으로 공공부조수급 탈출의 유일한 수단은 '일'이며, 근로의욕 내지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Tang and Smith Brandon, 2001 ; Kalil et al., 2001 ; 김교성 · 강철희, 2003: 25). 셋째, 공공부조수급자에게 일의 의미는 반드시 경제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들의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정진경, 2003).

그러나 실제로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와 실제 취업과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연구도 미미할 뿐 아니라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수급자들은 비수급자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낮았으며, 단, 수급자 가운데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는 비참가자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높았고(Tang and Smith Brandon, 2001), 일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결과이다(Kalil et al., 2001). 반면, 복지수급 경험과 일에 대한 태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복지수급자들은 복지급여 보다 일을 더 선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와 실제 취업여부의 관계 역시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Edin and Lein, 1996).

국내 연구의 경우 성미란(1993)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일반적인 노동의욕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 반면, 이원익(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빈곤층 내지 공공부조수급자들의 전반적 일에 대한 태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연구들에서 일에 대한 태도의 측정이 저마다 다른 문항 내지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Tang and Smith Brandon(2001)은 프로테스탄트 근로윤리 척도 중 하나인 Blood(1969)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프로테스탄트 근로윤리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계가 있는 개념으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이도화, 1995; Blau and Rayn, 1997).

또 Kalil 등(2001)은 비교적 공공부조수급자에게 적합한 문항들로 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으나 척도화되지는 않았다.

국내 연구의 경우 실증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있더라도 제한적인 변수의 사용, 이론적인 검토와 체계적 척도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정책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측정도구의 부재는 정책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하며, 따라서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근로윤리 척도나 공공부조수급자의 일 태도 척도 등 광범위한 문헌고찰과 전문가조사 등을 토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측정 도구에 대해 실증조사와 통계분석 과정을 거쳐 일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2. 기존 척도 검토

'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논의는 1905년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저서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Protestant Work Ethic'은 일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였으며,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구체적 개념화와 측정도구가 개발되면서 근로윤리는 독립/자립의 중요성, 검약, 여가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과 관련된 개념들을 포괄하게 되었다(Morrow, 1993: 1). Protestant Work Ethic(이하 PWE)은 이후 근로윤리(work ethic)나 일 태도(work attitude)의 기본이 되어 왔으며(Blau and Rayn, 1997),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조사에 앞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초의 Protestant Work Ethic 척도는 Blood(1969)의 4항목 척도이나 1980년대 이후 여러 가지 측정상의 문제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Mirels and Garrett(1971)의 PWE나, Buchholz(1976)의 Work Ethic Scale이 대표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두 개의 척도를 살펴보면, 먼저 Mirels and Garrett이 Protestant Work Ethic을 개발할 당시에는 이들에 의해 근로윤리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단, Cook et al(1981), Morrow(1983), Furnham(1990) 등 후대의 학자들이 Mirels and Garrett의 PWE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근로윤리는 '근면과 검약의 중요성 및 지나친 여가와 돈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Mirels and Garrett의 PWE는 19문항 7점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 척도의 내적신뢰도는 α = .67~.80으로 보고되고 있다(Morrow, 1993 재인용).

그러나 본 척도는 시대적,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Morrow, 1993; Blau and Rayn, 1997; 이도화, 1995). 예를 들어 본 척도에서는 여가나 소비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근로윤리로 강조하고 있으나, 오늘날 여가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믿음과 건전한 소비 역시 권장되는 사회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Mirels and Garrett(1971)의 PWE가 일부 특정종파나 산업화 초기라는 특정 시대의 가치에 편중되어 있다는 제한점으로 인해 이후 Bucholz(1976)는 근로윤리(Work Ethic) 척도를 개발한다.

Bucholz(1976)는, 근로윤리(Work Ethic)란 '일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며,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유용하지 못하다. 근면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성공과 부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절약과 검소는 미덕이며 사람은 가능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의 척도는 7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문항 중 5문항이 독립과 자립에 대한 문항으로 특히 독립과 자립을 강조하였다.

Bucholz(1976)의 척도는 기존의 프로테스탄트 척도보다 종교적, 시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독립과 자립'에 대한 강조는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Morrow(1993), Furnham(1990)의 연구는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척도개발을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Furnham은 '근로윤리가 일과 관련된 신념체계이며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위 Mirels and Garrett(1971)과 Bucholz(1976)의 척도를 비롯하여, 이후에 개발된 Hammond and Williams(1976), Ray(1982), Ho(1984)의 척도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이들 척도들은 7개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7개 요인은 ① 목적 자체로서의 일(work as an end in itself), ② 근면과 성공(hard work and success), ③ 여가(leisure), ④ 돈/검약(money/efficiency), ⑤ 정신적/종교적(spiritual/religious) ⑥ 도덕(moral) ⑦ 독립/자립(independence/self reliance)이다.

나아가 Furnham(1990a, 1990b)은 실증조사(대부분 대학생 78%)를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위 7개의 하위 요인에서 최종 4개의 하위요인(근면에 대한 믿음, 여가 회피, 독립/자립, 검약)에 51개 문항을 근로윤리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Blau and Rayn(1997)은 Furnham의 연구가 지금까지의 근로윤리 척도들을 포괄하면서 논리적, 이론적으로 가장 잘 정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단 51개 문항이 너무 많아 조사의 비실용성을 지적하면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와 척도의 간명성(parsimonious)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Furnham의 연구결과에서 4개 요인 가운데 요인부하량이 큰 값의 변수를 중심으로 25개 문항을 선정하여, 목사와 수녀, 교구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543명을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근면, 여가, 자립, 검약 요인을 확인하고 18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프로테스탄트 근로윤리(PWE)나 기타 근로윤리(WE)에 대한 검토는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하위요인들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Blau and Ryan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Furnham의 기존척도 분석 결과로 제시된 7개 요인은 매우 포괄적인 동시에 논리적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의 요인선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기존의 '근로윤리' 척도들을 공공부조수급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근로윤리'라는 용어의 정의이다.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으로, 근로윤리란 일에 대해 개인(혹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관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이도화, 1995 : 270). '윤리'란 용어에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한 도덕적 규범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근로윤리'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규범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기존의 근로윤리 척도는 조사대상이 종교인이나 대학생 등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거나 이미 취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공공부조수급자의 경우는 상당수가 근로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로테스탄트 근로윤리나 근로윤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시대적, 문화적 차이는 가장 큰 제한점으로, 기존 척도의 여가(leisure), 정신적/종교적(spiritual/religious), 도덕(moral) 요인을 그대로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하부터는 본 연구의 대상과 동일한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측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Tang and Smith-Brandon(2001)은 Blood(1969)의 Protestant work ethic(4문항 5점 척도, α=.74)을 활용하여 공공부조수급자의 일과 관련된 태도, 취업노력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Blood의 척도는 앞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바(Morrow, 1993) 이 척도를 공공부조수급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데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비해 Kalil, Schweingruber, Seefeldt(2001) 등은 특별한 요인구조 없이 연구자들이 개발한 공공부조수급자의 전반적인 일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으며, 이들 척도는 4문항 5점척도로 구성되었다(α=.67). 주요 내용은 일할 능력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일을 해야 하며, 미래 준비를 위한 저축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척도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 동일할 뿐 아니라 공공부조수급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일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고 있어 문항적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연구 가운데 빈곤문화의 존재가능성을 연구한 박윤영(1998)은 '보수가 적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가'하는 단일문항으로 근로태도를 측정하였으며, 기타 취업욕구나(김교성 · 강철희, 2003) 근로의욕 등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일에 대한 태도를 척도의 형태로 조사한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연구가 유일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에 대한 태도 조사항목은 생활보호제도 하에서의 자활대상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연구자와 현장 실무자들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일에 대한 느낌, ② 일에 대한 적극성, ③ 일에 대한 후방굴절성, ④ 여가와 노동간의 대체성, ⑤ 일에 대한 도덕적 태도로 나누어 5항목 5점척도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일 태도 조사항목은 일 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었으며, 5개 항목의 구분에 대한 근거나 통계적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의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Furnham에 의해 구분된 7개의 요인구조 가운데, 시대적 문화적인 차이에 덜 민감할 뿐 아니라 다른 척도들의 문항들을 포괄하면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 4개의 요인을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4개 요인은 일 자체에 대한 생각, 독립과 자립, 근면과 성공, 검약이다(<표 1> 참조).

## 3. 연구절차 및 방법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절차는 ① 문헌 및 기존척도 분석, ② 본 척도에서의 개념 및 요인추출, ③ 전문가조사, ④ 사전조사 및 탐색적 요인분석, ⑤ 본조사 및 확인적 요인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또 매 단계에서 본 척도의 내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문가의 검토와 엄격한 통계분석 절차를 거치고자 하였다.

<표 1> 일에 대한 태도 관련 측정도구 검토

| 구 분 | Protestant Work Ethic<br>Mirels and Garett (1971)<br>19항목 7점척도(α=.67~.80) | Work Ethic<br>Bucholz (1976)<br>7항목 5점척도(α=.72) | Work Ethic<br>Blau and Ryan(1997)<br>18항목 7점 척도 | Attitude toward Work<br>Kalil et al.(2001)<br>4항목 5점척도(α=.67) | 일에 대한 태도<br>보건사회연구원 (1995)<br>5항목 5점척도 |
|---|---|---|---|---|---|
| 1. 주요 개념 | · 근면과 검약의 중요성 및 지나친 여가와 돈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믿음<br>* 최초 이들 학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없음. 단, Cook et al.(1981), Morrow(1983), Furnham(1990) 등 내용분석과 요인분석에 의해 귀납적으로 정의한 것임 | · Work Ethic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믿음<br>- 일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며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무용.<br>- 근면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공과 부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br>- 절약과 검소는 미덕<br>- 사람은 가능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함. | · work ethic 은 일과 관련된 다차원적 개념<br>· Furnham(1990)의 4개요인(51문항)에 대한 구성타당도 및 간결성 높이기 위한 요인분석 | · 일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 인식<br>* AFDC/TANF 수급자의 일에 대한 인식 조사 | · 개념정의 보고되지 않음<br>* 자활대상자의 일 태도 조사 |
| 2. 요인구조 | · 근면과 검약에 초점 | · 독립과 근면에 초점 | · 근면, 여가, 검약, 독립에 초점 | · 목적자체로서의 일에 대한 태도 초점 | |
| ① 목적자체로서의 일<br>work as an end in itself | · 어떠한 일이라도 일은 해야 하는 것 (2) | | | ·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근로능력 있으면 일해야 함 (3) | * 다음의 5개 요인으로 설명<br>· 일에 대한 느낌 (1)<br>: 일은 즐거운 것<br>· 일에 대한 적극성 (1)<br>: 일 대가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br>· 여가와 노동간의 대체성 (1)<br>: 여가시간보다 근로시간 더 중요<br>· 일에 대한 후방굴절성 (1)<br>: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소득 있어도 일 해야만 함<br>· 일에 대한 도덕적 태도 (1)<br>: 근로능력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 |
| ② 근면과 성공<br>hard work and success | ·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것, 근면해야 성공할 수 있음 (8) | · 일상의 문제 해결, 결과에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함 (2) | · 근면은 인격, 인생, 성공의 열쇠(9) | | |
| ③ 여가<br>leisure | · 여가, 오락은 무익하며, 지나친 여가는 사회문제 일으킴 (5) | | · 여가 보다는 일을 선호(5) | | |
| ④ 돈/검약<br>money/efficiency | ·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닌 것, 혹은 신용카드는 부주의한 소비조장 (2) | | · 불분명한 소비는 좋지 않은 것 (3) | · 미래준비를 위한 저축 위해 일해야 함 (1) | |
| ⑤ 정신적/종교적<br>spiritual/religious | · 인생은 고통이 따름 (1) | | | | |
| ⑥ 도덕<br>moral | · 자수성가한 사람이 부자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윤리적 (1) | | | | |
| ⑦ 독립/자립<br>independence/self reliance | | · 일을 통한 자립적 생활, 독립적 의사결정 (5) | ·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생활(4) | | |
| 3. 검 토 | · 일 태도, 근로윤리의 기원<br>· 특정 종교에 기반 사대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 여가, 종교 요인 적용 부적합.<br>· 근면과 성공에 대한 인식은 공공부조수급자의 근로동기와 근로의욕을 어느 정도 고취시킬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됨 | · PWE보다 종교적 자율성 확보<br>· 독립, 자립요인은 정부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의지, 심리적 독립심 등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 | · Furnham(1990)의 연구결과에 대해 논리성, 체계성 안정 동시에 구 성타당도와 간결성을 더 높히기 위한 시도는 매우 유용하였음<br>· 그러나 조사대상의 50%가 목사, 수녀,교수민 등 특정 종교인에 편중. 또 여전히 여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근로윤리로 볼 것인가는 의문. | · 공공부조수급자의 특성이 고려된 실제적 문항 구성<br>· 명확한 요인구조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세부문항은 전반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사항이 됨.<br>· 검약 관련 문항은 PWE에 비해 공공부조수급자에게 현실적 적용 가능 | · 기존 척도에 대한 과학적 검토 과정 보고 안됨. 기존 척도의 요인구조와 비교해 볼 때 후방굴절성이나 도덕적 태도 등은 동일한 요인으로 보임<br>· 우리나라 현실적 상황 고려한 유일한 척도이며 세부 문항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됨. |

<표 2> 일에 대한 태도 척도개발 과정

| 단 계 | 주요 내용 | 타당도 검증 | 신뢰도 검증 |
|---|---|---|---|
| 1. 문헌 및 기존연구 고찰 | ○ 주요자료 : Furnham(1997), Morrow (1993), Blau & Rayn(1997), Kalil et al(2001) 등<br>- 각 연구별 주요개념정의, 요인구조, 세부문항 검토 및 평가 | 전문가 검토 및 지도(교수 2인) | |
| 2. 요인 및 문항추출 | ○ 문헌고찰 검토 토대 4개요인 추출<br>① 목적자체로서의 일, ② 독립, 자립<br>③ 근면과 성공, ④ 검약<br>○ 각 요인의 세부문항 추출 (30 문항)<br>- 기존척도의 하위문항 참조 및 연구자 개발 문항 추가 | | |
| 3. 전문가 조사 실시 | ○ 관련 분야 전문가 의뢰, 각 요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 선정<br>→ 18문항 선정 | ○ 전문가 15명<br>- 교수 1, 전문연구원 5, 전담공무원 2, 자활지원센터 2, 박사과정 5 | |
| 4. 사전조사 실시 및 분석 | ○ 조사대상 및 분석사례수<br>: 등촌3동, 신공덕동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공공부조수급자 27명 조사, 26개 사례 분석 | ○ 1차 요인분석 결과(18문항)<br>- 7개 요인 추출(75.7%)<br>→ factor loading 및 문항내용 분석<br>→ 4개요인 12문항 선정 (71.96% 설명력) | α = .76 |
| | ○ 문항 수 : 18문항 | ※ 요인 및 문항선정기준(Blau & Ryan, 1997 참조)<br>① 한 요인에 대한 한 변수의 factor loading이 .50 이상일 것<br>② 한 요인에 적어도 2-3개 이상의 변수가 포함될 것<br>③ 한 요인에 포함된 변수의 factor loading이 다른 요인에서의 값과 .2 이상 차이가 날 것<br>④ Eigen value 1이상 및 스크리(Scree) 도표 확인 | |
| | ○ 1차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18)<br>- Varimax / Quartimax rotation<br>- Reliability test | | |
| | ○ 2차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12)<br>- Varimax / Quartimax rotation<br>- Reliability test | ○ 2차 요인분석 결과<br>- 4개요인 12문항 71.96%<br>· F1 일 자체 4문항 22.4%<br>· F2 독립/자립 4문항 19.69%<br>· F3 근면과 성공 2문항 15.72%<br>· F4 검약 2문항 14.12% | ○ α = .71<br>· F1(α) = .77<br>· F2(α) = .70<br>· F3(α) = .61<br>· F4(α) = .64 |
| | ○ 최종 문항 확정 | | |
| 5. 본조사 실시 및 분석 | ○ 조사대상 및 분석 사례수<br>; 서울시 거주 공공부조수급자 494명<br>○ 조사문항 : 12문항<br>○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 요인분석 결과<br>- 3개요인 11문항 54.88%<br>· F1 독립/자립 6문항 25.15%<br>· F2 일 자체 3문항 16.23%<br>· F3 근면과 성공 2문항 13.50% | ○ α = .79<br>· F1(α) = .73<br>· F2(α) = .60<br>· F3(α) = .65 |

### 1) 하위요인 및 세부문항구성

본 척도에서 '일'이란 자신의 노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수반되는 경제적 활동으로서의 일을 의미한다. 또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란 일 자체에 대한 전반적 생각을 포함하여 일을 통한 성공과 독립 및 검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하위요인과 세부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 자체에 대한 생각은 일의 긍정적 기능과 일의 당위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의미한다.

② 독립과 자립은 정부의 지원으로부터의 자립을 비롯한 스스로의 독립적 생활을 의미한다.

③ 근면과 성공에 대한 생각은 열심히 일함으로서 좋은 인생을 만들고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④ 검약은 미래준비를 위한 절약과 저축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과 요인을 선정하여 기존 척도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들과 본 연구자가 추가로 개발한 문항들을 포함하여 전문가조사를 통해 각 요인별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 2) 전문가 조사

전문가조사는 총 15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교수 1인, 전문연구원 5인, 전담공무원 2인, 자활지원센터 2인, 박사과정 5인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2003년 5월 12일~5월 17일 1주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18문항을 선정하였다.

① 일 자체에 대한 생각, 6개 문항.

② 독립과 자립, 6개 문항.

③ 근면과 성공, 4개 문항.

④ 검약, 2개 문항.

### 3) 조사대상 및 측정

#### (1)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2003년 5월 24일-5월 27일 3일간에 거쳐 서울시 등촌 3동 및 신공덕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공공부조수급자 27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통계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부정확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6사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사전조사에서의 측정은 앞서 전문가조사를 통해 확정된 조사문항 18개 문항을 조사도구로 하여 측정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03년 5월 29일-6월 15일, 약 17일에 걸쳐 5명의 전문조사원들에 의한 면접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분포자료를 표집틀로 하여 수급대상이 가장 밀집된 상위 5개구(노원구,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강남구)를 선정하고, 5개 구 내에서도 수급기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인 영구임대단지 1개동과 일반주거지역 1개동을 각각 선정하여 총 10개동(중계3동, 상계3동, 등촌3동, 공항동, 번2동, 미아2동, 신내2동, 중화2동, 수서동, 역삼1동)을 선정하였다.

마지막 표본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동사무소의 수급가구 전체목록에서 수급유형에 따라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수급가구를 나누고, 각 수급유형에서 가구유형을 고려한 비례할당을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할당된 표본자료를 참조하여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표본이 추출되었다.

최종 표본수는 616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502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502사례중 응답불능 사례를 제외한 494사례를 통계분석에 포함하였다.

최종 분석사례인 494명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5세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28.9%, 여성 71.1%였다. 수급유형으로는 일반수급자 84.2%, 조건부 수급자 15.8%였다. 가구유형으로는 일반가구 32.6%, 노인가구 32%, 모자가구 16.8%, 부자가구 3.2%, 장애가구 6.4%, 기타가구 1.2%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가능한 많은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가구유형과 수급유형을 적용한 비례할당을 하였음에도 조사지역이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국한됨으로써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공공부조수급자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전조사 결과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18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Varimax 회전과 Quartimax 회전 방법 모두를 적용하여 두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가 일치하는 요인과 문항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Varimax 회전은 요인간의 변량을 최대화하여 가장 간단한 요인구조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반면에 Quartimax 회전은 변수간의 변량을 최대화하면서 요인구조를 제시하기 때문에 요인의 간결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변수에 대한 정보손실 우려가 적다(Barbara and Linda, 2001 : 615)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둘째, 본조사 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결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제시된 12개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전방법은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의 변별력을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통계분석은 SPSS 11.0에 의해 수행되었다.

## 4. 분석결과

### 1) 사전조사 분석결과

사전조사 문항 18개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차적으로 7개 요인이 추출(75.7% 설명력)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개 요인에 해당되는 9개문항들은 내용상 일관적인 특징이 없고 분류하기가 매우 모호하여 이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4개요인 12문항을 우선적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 및 문항선정에 사용된 기준은(Nunnally, 1978 ; Van Dync etc. 1994 ; Blau and Ryan, 1997 재인용) ① 한 요인에 대한 한 변수의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이 .50 이상이고, ② 한 요인에 적어도 2-3개 이상의 변수가 포함되어야 하며, ③ 한 요인에 포함된 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다른 요인에서의 값과 .2 이상 차이가 나야한다. 기타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과 스크리 도표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추출된 12문항에 대해 추가적인 요인분석 수행결과 4개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이들 요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대략 72%였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일 자체에 대한 생각으로 4개문항(22.4%), 요인 2는 독립과 자립에 대한 생각으로 4문항(19.69%), 요인 3은 근면과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2문항(15.72%), 요인 4는 검약에 대한 생각으로 2문항(14.12%)이 추출되었다. 스크리 도표에 의한 확인에 의해서도 4개 요인이 지지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12문항을 조사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3> 참조).

### 2) 본 조사 분석결과

#### (1) 요인분석결과

본 조사는 앞서 사전조사결과 최종적으로 구성된 12문항에 대해 조사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494였다.

본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사전조사 분석시 제시되었던 4개 요인 12개 문항이 3개 요인 11개 문항으로 재분류되었다. 3개 요인의 설명력은 54.88%로 사전조사 결과(71.96%)보다 설명력이 낮아졌으며,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독립/자립' 요인으로 6문항 25.15%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본 조사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별도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던 '검약' 요인(2문항)이 '독립/자립'요인으로 흡수된 것이다. '검약' 요인이 '독립/자립' 요인으로 흡수된 것은 미래준비를 위한 저축이 결국 독립이나 자립을 위한 준비로서 인식되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요인은 '일 자체에 대한 생각'으로 3문항이(16.23%), 세 번째 요인은 '근면과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2문항(13.5%)이 추출되었다.

〈표 3〉 일에 대한 태도 척도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26, Item : 18, Method : Principal Component, Quartimax Rotation

| 문 항 | 요 인 | | | | | | |
|---|---|---|---|---|---|---|---|
| | F1 일 자체에 대한 생각 | F2 독립/자립 | F3 근면과 성공 | F4 검약 | F5 | F6 | F7 |
| 1. 가능한 일을 해서 공공부조수급에서 탈출해야 한다 | **.839** | .007 | -.006 | -.005 | - | -.102 | .241 |
| 2.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직업이 없는 것보다 낫다 | **.730** | .280 | - | .110 | -.318 | .200 | .124 |
| 3.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일해야 한다 | **.730** | .294 | .008 | .138 | -.268 | .148 | -.233 |
| 4. 일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 **.510** | .130 | -.225 | .222 | .362 | .428 | .376 |
| 5.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 .176 | **.825** | - | .210 | .118 | -.290 | .009 |
| 6.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한다 | -.008 | **.774** | -.124 | -.008 | - | .276 | .268 |
| 7. 사람은 가능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 | .207 | **.627** | .375 | .288 | .225 | .200 | -.104 |
| 8.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사람에 대한 의존을 피해야 한다 | 302 | **.508** | -.196 | .391 | .479 | -.006 | .139 |
| 9.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의 기회를 많이 갖는다 | - | -.548 | **.777** | .008 | - | .009 | - |
| 10. 열심히 일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 | .268 | .107 | **.766** | -.155 | .008 | -.280 | .007 |
| 11. 미래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 -.005 | .267 | - | **.839** | .207 | -.007 | - |
| 12.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도(정부지원금 등) 아껴쓰면서 저축해야 한다 | .320 | -.138 | -.146 | **.834** | - | -.006 | - |
| 13. 근로시간보다 여가시간이 더 중요하다 | -.117 | -.007 | .394 | - | **.733** | - | -.153 |
| 14.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립할 수 없다 | -.009 | .201 | -.110 | .399 | ***.636*** | - | .005 |
| 15. 일할 능력이 없으면 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110 | .315 | .007 | -.112 | - | ***.835*** | - |
| 16. 열심히 일을 하면 일상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 **.709** | -.007 | .307 | - | .352 | -.008 | - |
| 17. 일은 즐거운 것이다 | .136 | .286 | -.136 | .006 | -.141 | .174 | **.700** |
| 18. 정부의 지원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 | .323 | .005 | .222 | -.151 | .110 | -.354 | ***.664*** |
|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75.7%** | **14.77%** | **14.52%** | **12.83%** | **10.24%** | 8.42% | 7.51% | 7.41% |

<표 4 >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결과 (N=494)

| 문 항 | 요 인 | | |
|---|---|---|---|
| | 독립/자립 | 일 자체 | 근면과 성공 |
| 1.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도(정부 지원금 등) 아껴 쓰면서 저축해야 한다[a] | **.789** | -.140 | -.009 |
| 2. 미래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b] | **.769** | -.008 | -.000 |
| 3. 사람은 가능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피해야 한다[c] | **.579** | .322 | -.139 |
| 4. 열심히 일하면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a] | **.577** | -.126 | .416 |
| 5. 사람은 가능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c] | **.573** | .174 | .129 |
| 6. 가능하면 일을 해서 공공부조수급대상에서 탈출해야 한다[a] | **.512** | .235 | -.109 |
| *7. 일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a] | **.467** | *.000* | *.172* |
| 8.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d] | - | **.725** | .162 |
| 9.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해야만 한다[b] | .350 | **.654** | .123 |
| 10.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직업이 없는 것보다 낫다[b] | .391 | **.652** | -.008 |
| 11. 열심히 일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c] | .374 | .129 | **.729** |
| 12.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의 기회를 많이 갖는다[c] | .352 | .207 | **.698** |
| 요인 설명력(7번 문항 포함) : 51.88% | F1 : 26.90% | F2 : 13.92% | F3 : 11.05% |
| **(7번 문항 제외) : 54.88% *** | **25.15%** | **16.23%** | **13.50%** |
| 내적 신뢰도(7번 문항 포함) : α = .795 | F1 : .73 | F2 : .61 | F3 : .65 |
| **(7번 문항 제외) : α = .793 *** | **.74** | **.60** | **.65** |

| 구 분 | 문항수 | 고유치 | 누적설명력 |
|---|---|---|---|
| 요인 1. 독립/자립 | 6 | 3.68 | 25.15 |
| 요인 2. 일 자체 | 3 | 1.34 | 41.38 |
| 요인 3. 근면과 성공 | 2 | 1.01 | 54.88 |

a) 연구자 자체 개발 (4)
b) Kalil et al(2001), Attitude toward work (3)
c) Bucholz(1976), Work ethic (4)
d) 보건사회연구원(1995) : 자활대상자의 일에 대한 태도 (1)

그런데 사전조사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일 자체에 대한 생각'에 포함되었던 한 개 문항('일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이 최종요인분석에서는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이 문항은 본 연구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이었으나 변수의 정보손실이 비교적 적은 quarimax 회전결과도 이 변수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50 이하인 .47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 문항을 제외한 후의 요인설명력이 본 문항이 포함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3% 포인트 높아졌고(51.88%→54.88%), 신뢰도에 있어서도 본 문항을 포함하였을 때와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α=.79 → α=.79) 고려하여 최종 문항 선정에서 본 문항을 제외시키기로 하였다(<표 4> 참조).

사전조사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시 사례가 적다(26)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요인분석 방법에 의한 결과를 참조하였고, 세부적인 문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등 일관되고 안정적인 요인과 문항을 추출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와 본 조사 요인분석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전조사 때의 분석 사례가 매우 적었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에 의해 측정된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는 총점 55점 중 평균 43.9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일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하위 요인에 따라서도 '독립/자립' 영역이 평균 23.76점, '일 자체에 대한 생각'이 12.54점, '근면과 성공'에 대한 생각이 7.69점으로 모두 상위 77% 이상의 점수에 포함되어 있었다.

<표 5>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N = 494)

| 구 분 | 전체(55점) | 하 위 요 인 | | |
|---|---|---|---|---|
| | | 독립/자립(30점) | 일 자체에 대한 생각(15점) | 근면과 성공(10점) |
| 평균<br>(표준편차) | 43.98<br>( 4.6) | 23.76<br>( 2.9) | 12.54<br>( 1.4) | 7.69<br>( 1.4) |
| 최소 | 30 | 15 | 7 | 2 |
| 최대 | 55 | 30 | 15 | 10 |

보다 구체적으로 본 척도가 공공부조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별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있어 남성 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여성 수급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령에 있어서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은 채 모든 집단에서 일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하의 저학력과 고졸이상의 고학력으로 구분하여 봤을 때 고졸이상의 고학력 수급자들이 중졸이하의 수급자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력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 차이는 특히 '독립과 자립'의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하였으며 고졸이상의 수급자가 독립과 자립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고학력 수급자일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으며 이러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정진경, 2003)에 비추어 봤을 때 학력 수준은 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결혼상태에 따라서도 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기혼자들의 일에 대한 태도 총점과 하위 요인인 '독립과 자립', '일 자체에 대한 생각' 영역에서 미혼이나 기타 결혼상태 보다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들 집단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일에 대한 태도 총점에서는 기혼인 집단과 미혼인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또 기혼인 집단은 기타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 요인인 '독립과 자립' 영역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며 모두 기혼인 집단이 미혼이나 기타 집단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 자체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기혼집단과 미혼집단 간에만 차이가 있었으며 기혼인 집단이 일 자체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부조수급자 중 기혼자들은 다른 결혼상태의 수급자들에 비해 일의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을 통한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공공부조수급자들의 일에 대한 태도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한 수급자들이 건강하지 못한 수급자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건강이 좋지 못한 수급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독립과 자립' 요인에서 건강한 수급자가 보통수준의 건강상태나 건강하지 못한 수급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부조수급자들의 건강상태는 취업욕구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왔다(김교성 · 강철희, 2003: 59).

그러나 장애 유무에 따라서는 일에 대한 태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애를 갖고 있는 수급자의 전반적인 점수가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가 있어도 근로능력과 큰 연관은 없는 반면, 장애인들의 일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일반가구의 수급자가 다른 가구유형에 있는 수급자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 총점 및 하위요인인 '독립과 자립'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일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는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의 수급자가 다른 가구의 수급자에 비해 일을 통한 자립적 가족부양에 대한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사후 분석결과에서는 '독립과 자립' 요인에서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수급자간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가구가 노령과 열악한 건강상태 및 근로미약 등으로 인해 독립과 자립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할만한 결과는 현재 취업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나, 비취업자들의 일에 대한 태도 총점이 취업자들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면과 성공' 영역에 있어서는 비취업자들이 취업자 보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취업한 공공부조수급자들이 일을 통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비취업 수급자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취업자들이 그리 좋지 않은 근로 환경 속에 있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이며, 따라서 일을 통한 만족할 만한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회의감을

더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6> 공공부조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

| 변 수 | | N | 총점(55) | 독립(30) | 일자체(15) | 성공(10) |
|---|---|---|---|---|---|---|
| 전 체 | | 494 | 43.98 | 23.76 | 12.54 | 7.69 |
| 성별 | 남 | 143 | 44.39 | 24.10 | 12.49 | 7.80 |
| | 여 | 351 | 43.81 | 23.62 | 12.56 | 7.64 |
| | | 494 | t = 1.26 | t = 1.63 | t = - 48 | t = 1.14 |
| 연령 | 18이상~45미만 | 135 | 43.83 | 23.93 | 12.33 | 7.57 |
| | 45이상~65미만 | 167 | 44.19 | 23.92 | 12.55 | 7.72 |
| | 65세 이상 | 192 | 43.90 | 23.49 | 12.67 | 7.74 |
| | | 494 | F = .27 | F = 1.24 | F = 2.49 | F = .63 |
| 학력 | 중졸 이하 | 344 | 43.72 | 23.58 | 12.52 | 7.63 |
| | 고졸 이상 | 150 | 44.57 | 24.16 | 12.58 | 7.83 |
| | | 494 | ***t = -1.89†*** | ***t = -1.99**** | t = .46 | t = -1.48 |
| 결혼※ | 미혼 | 51 | 42.88[a)] | 23.24[a)] | 12.10[a)] | 7.55 |
| | 기혼 | 150 | 44.98[b)] | 24.48[b)] | 12.67[b)] | 7.83 |
| | 기타(사별,이혼) | 293 | 43.66[ab)] | 23.47[a)] | 12.55[b)] | 7.64 |
| | | 494 | ***F = 5.74*** | ***F = 6.62*** | ***F = 3.24**** | F = 1.18 |
| 건강 | 건강함 | 81 | 45.14[b)] | 24.47[b)] | 12.74 | 7.93 |
| | 보통 | 70 | 43.53[a)] | 23.37[a)] | 12.61 | 7.54 |
| | 건강하지 않음 | 343 | 43.80[a)] | 23.66[a)] | 12.47 | 7.66 |
| | | 494 | ***F = 3.14**** | ***F = 3.07**** | F = 1.35 | F = 1.53 |
| 장애 | 장애 | 102 | 44.01 | 23.87 | 12.31 | 7.82 |
| | 비장애 | 392 | 43.97 | 23.72 | 12.59 | 7.65 |
| | | 494 | t = .07 | t = .45 | t = -1.82 | t = 1.07 |
| 가구 유형 | 일반가구 | 161 | 44.84 | 24.34[b)] | 12.66 | 7.84 |
| | 노인가구 | 158 | 43.62 | 23.33[a)] | 12.63 | 7.66 |
| | 모부자가구 | 99 | 43.42 | 23.65[ab)] | 12.34 | 7.43 |
| | 장애/기타가구 | 76 | 43.62 | 23.55[ab)] | 12.32 | 7.75 |
| | | 494 | ***F = 2.85**** | ***F = 3.29**** | F = 2.00 | F = 1.74 |
| 현재 취업여부 | 취업 | 117 | 43.39 | 23.50 | 12.48 | 7.41 |
| | 비취업 | 377 | 44.16 | 23.83 | 12.55 | 7.77 |
| | | 494 | t = -1.57 | t = -1.04 | t = -.52 | ***t = -2.41**** |

1) †p< .10, * p < .05, ** p <.01 , 2) 사후분석은 Scheffe와 Duncan test에 의해 분석한 것임.
3) ※ 결혼상태에 따른 ANOVA 분석의 사후분석 결과 유의수준 .10 미만에서 유의미한 차이.
건강상태 및 가구유형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유의한 차이.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는 '독립과 자립', '일 자체에 대한 생각', '근면과 성공'이라는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본 척도의 세 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누적 설명력은 54.9%였으며, 내적 신뢰도는 α= .79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 의해 측정된 우리나라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는 55점 만점에 평균 43.98점으로 높은 수준의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고학력, 기혼, 건강, 일반가구의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이론적 검토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해 내적 신뢰도와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여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 구라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본 척도의 측정결과로 나타난 집단간 변별력을 통해 공공부조수급자 또는 수급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나 수급자들의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수급자들에 대해 장애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들의 근로욕구가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취업 상태에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본 척도의 학문적 및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발단계에 있는 척도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점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척도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척도는 '공공부조 수급'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척도가 '공공부조 비수급자'(혹은 근로자)의 일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와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즉, 본 척도의 판별타당도에 대한 후속 검증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표 6>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척도가 집단간의 변별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일에 대한 태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생각이 반영되기보다 사회적인 가치가 반영된 응답, 즉 사회적 바람직성 편견에 의한 부정확한 답변의 문제는 아닌가에 대해 후속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본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검증과 개선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가 측정되게 된다면 이를 통해 공공부조 분야에 보다 활발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에 대한 태도와 실제 취업여부와의 관계,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간의 일에 대한 태도 비교, 취업한 수급자와 비취업 수급자의 태도 비교, 자활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태도 비교 등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의 개선과 보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들이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김교성 · 강철희. 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 5-32.

박윤영. 1998.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생활보호대상자의 빈곤문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미란. 1993. "생활보호정책과 노동의욕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도화. 1995. "근로윤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인적특성, 사회화, 직무관련 특성의 영향". 『경영학연구』 24(3) : 265-300.

이원익. 1999.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피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진경. 2003. "공공부조수급자의 복지의존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자활지원을 중심으로』

Barbara G. Tabachnick and Linda S. Fidell.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ition. Allyn and Bacon Press.

Blau, Gary and Ryan Jack. 1997. "On Measuring Work Ethic : A Neglected Work Commitment Face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1 : 435-448.

Buchholz, R. 1977. "The Belief Structure of Managers Relative to Work Concepts measured by a factor analytic model". *Personal Psychology* 20 : 567-587.

Edin, K. and L. Lein. 1996.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Edwards, M. E., R. Plotnick, and M. Klawitter. 2001. "Do attitud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ffect socioeconomic outcomes? The case of welfare use by young women". *Social Science Quarterly* 82(4): 817-827.

Furnham, A. 1990. "A content, correlational, and factor analytic study of seven questionnaire measures of th Protestant work ethic". *Human Relations* 43: 383-399.

Furnham, A. 1992. *Personality at work*. Routledge press: 309-361.

Furnham, A. 1997. *Work-related attitudes, Values and Perceptions*: 206-221.

Kalil, Ariel, Schweingruber, A Heidi and Seefeldt, Kristin S. 2001. "Correlates of employment among welfare recipients : D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matt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5) : 701-723.

Morrow, P. 1983.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work commitment*. Greenwich, CT : JAI Press : 1-13.

Murray, Charls. 1984. *Losing Ground: American Social Policy, 1950-1980*. New York : Basic Books Inc.

Snir, Rahael. 2002. "Work-Leisure Relations: Leisure Orientat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2) : 178-203.

Tanner, M., Moore, S. and H. David. 1997. "Welfare pays better, so why work?". *The Magazine of the American Scene* 125(2622) : 22-24.

Thomas, Li-Ping Tang and Vancie L Smith-Brandon. 2001. "From welfare to work: The endorsement of the money ethic and the work ethic among welfare recipients, welfare recipients in training programs, and employed past welfare recipient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30(2) : 241-260.

# A Development for 'Attitude toward Work Scale' on Welfare Recipients

Jung, Jin-Kyung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ttitude toward work scale on the welfare recipients in Korea. This study has proces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research.

As a results, there are 3 factors, 'independent/reliance', 'work as itself', 'hardworking and success' in this scale. And this scale is composed of 11 items with 5 likert scale. The sums of squared loading of this scale is 54.9%, and the internal reliability is α= .79.

The means of attitude toward work on welfare recipients in Korea is 43.9 among the total sum 55. This means the welfare recipients in Korea have highly positive attitude toward work.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as a first trial to measure work attitude on welfare recipients in Korea more objective and scientific. But this scale need some follow-up study to improve the validity and elaboration.

Key word :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attitude toward work scale, work ethics

[접수일 2004. 6. 2. 게재확정일 2004. 7. 15.]